

지난 7월 말경 발생한 캄보디아–태국 국경 분쟁으로 마을 주민 및 학생 80%가 피난길에 올랐다. 다행히 현재는 다시 일상을 회복 중이다. 사진은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이 캄보디아 국경 인근 뽀디봉 마을에 건립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

총성 멎은 자리에 아이들 웃음꽃 피어나다

캄보디아-태국 분쟁 뽀디봉 마을 이야기

7월, 태국–캄보디아 분쟁 발발
수레꾼 지원 뽀디봉 마을 위협
마을 주민들 정처 없이 피난길
16년 간 세워 낸 학교 등 위기

주변 만류에도 '뽀디봉行' 선택
분쟁 중재되면서 주민들 마을로
"포탄들이 상공 가로질러" 증언
일상 찾아가는 학생 보며 안도

초등학교엔 시청각 교보재 지원
중학교 및 새로 설립 공예학교엔
컴퓨터 · 레이저 프린트 등 전달
"수레꾼, 자비 실천 등불 밝힐 것"

지난 7월 말,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는 다시금 총성이 울렸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프레아비히어 사원(Temple og Preah Vihear) 인근 영토 분쟁이 무력 충돌로 비화하면서 불과 닷새 사이에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해 100여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수십만 명이 집을 버리고 피난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가 이미 두 차례(1962년, 2013년)에 걸쳐 이 지역의 소유권을 캄보디아에 귀속한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경선에 대한 해석 차이는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되어 왔습니다.

7월 24일 오전에 시작된 이번 충돌은 전투기와 드론이 동원되고 캄보디아군 장성 2명이 전사하는 등 사실상 전쟁에 가까운 양상이었습니다. 민간인 거주지에까지 포탄이 떨어지며 국경 근처 마을들이 불타올랐고 주민들이 대거 국경을 넘어 탈출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아세안 회원국들의 압박과 중재 속에서 7월 28일 밤 간신히 휴전이 성립되었지만, 이후에도 국경 지대에서는 크고 작은 충돌이 이어지며 긴장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뽀디봉 마을에도 戰火가

이토록 오랜 분쟁의 씨앗을 품고 있는 프레아비히어 사원은 캄보디아 북동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쟁은 16년 전부터 한국의 재가불자 비영리단체인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이하 수레꾼)'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세우고, 우물을 파고, 나무를 심으며 일구어 온 뽀디봉 마을도 덮쳤습니다.

캄보디아 북서부에 있는 뽀디봉 마을은 태국 국경에서 불과 20km 떨어진 작은 마을인데, 이곳에서부터 그리 멀지 않은 타문톰 사원에서도 뜻하지 않게 큰 총격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듬성듬성한 철조망이 엉성하게 국경을 대신하고 있는 곳에 위치한 타문톰 사원에, 40년간 캄보디아 정치권력을 쥐고 있는 훈센 정권의 다연발 로켓 포격이 가해져 사상자가 속출했고, 이로 인해 다섯 곳 이상의 국경 지역에서 전투가 동시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실 물도 없고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던 황무지에서 시작된 수레꾼의 노력이 일시에 사라져버릴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난 16년 동안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공예학교를 세우고, 이곳 아이들과 주민들이 '희망의 학교'라 부르던 배움터를 중심으로 미래의 씨앗을 뿌리고 키워 왔는데 이번 캄보디아 북서부의 국경에서 갑자기 일어난 전쟁 앞에 그 모든 일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마을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등지고 떠나야 했습니다. 우기의 억센 비는 멈출 줄 몰랐고, 집과 논밭은 허망하게 비워졌습니다. 경운기 위에는 천막이 실리고, 그 위로 노인과 아이들이 빗줄기를 맞으며 몸을 의탁했습니다. 세찬 비를 뚫고 나서는 길은 목적지도 없는 피난길이었고, 오랜 세월 한 뼘 한 뼘 가꿔 온 삶의 보금자리는 그 뒤로 초라하게 남겨졌습니다. 전쟁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폭력 앞에서, 사람들은 눈물조차 제대로 흘릴 틈 없이 정처 없이 내몰려야 했던 것입니다.

수레꾼, 다시 뽀디봉 마을로

주변의 많은 이들이 이번만큼은 너무 위험하니 가지 말라고 거듭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수레꾼의 대표로서 이곳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위험 앞에서 등을 돌린다면, 학교를 세우고, 나무를 심고, 우물을 파며 함께 살아온 지난날들이 무너져 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위기의 순간 곁을 지키고 함께 울고 함께 서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길을 걸어온 수레꾼이 끝까지 감당해야 할 도리이자 부처님의 가르침 앞에서 지켜야 할 책임이었습니다.

지난 8월 15일, 마을에 도착해 보니 주민의 절반 정도만 돌아와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여전히 귀환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온 가족이 경운기에 몸을 싣고 100km가 넘는 길을 며칠씩 달려가 난민촌에서 지내야 했던 이들이 다시 마을로 돌아오는 데에는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학교의 교실은 몇몇 학생들만이 등교해 텅 비어 있었고, 평소의 활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십여 명의 마을 경비단과 함께 학교를 지켜온 팅 힘(Ting Him) 뽀디봉 중학교 교장 선생님은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포격이 일어나는 날, 태국에서 쏜 포탄이 학교 상공을 가로질러 날아왔습니다. 포탄의 궤적과 불꽃이 하늘을 가를 때마다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녹색의 논밭 위로 드넓게 펼쳐진 열대의 구름 사이로 포탄이 날아다니는 장면을 떠올리니,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지난 16년 동안 이 학교와 마을에 나무를 심고 우물을 파며, 학용품을 지원해 온 한국 불자들의 정성과 땀이 한 순간에 사라질 뻔한 아찔한 비극이 눈앞에서 펼쳐졌던 것입니다. 그 포탄들 가운데 몇 발은 실제로 우리 마을에서 그리 멀지 않은 한 초등학교에 떨어져 학교 건물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 참담한 장면은 현지 언론과 유튜브를 통해 보도될 만큼 큰 사건이었기에, 결코 남의 일이라 할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지낸지 열흘이 지난 지금은 다행히 주민의 80% 이상이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피난을 어디로 가서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교사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은 이 마을에서 자동차로 약 3시간쯤 떨어진 씨엠립 근처에 있는 사원의 마당에 천막 텐트를 치고 수백 가구씩 나누어서 생활하다 돌아왔다고 합니다.

자동차로도 세 시간이 걸리는 길을, 경운기를 타고 간다면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 더구나 하루도 빠짐없이 내리는 세찬 비를 맞아가면서 줄지어 피난갔을 광경을 상상하니 가슴이 더욱 아팠습니다. 그처럼 열악한 피난 생활 탓에 아이들과 노인들의 건강이 크게 악화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마음은 한층 더 무거워졌습니다.

초등학교 교장 선생인 쏘리야(Soriya)는 물론 그의 아버지와 두 딸 모두 댕기열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는 모습도 지켜봐야 했습니다. 저는 우선 학교에 비상약을 비치하도록 조치하고, 교정을 이곳저곳 둘러보았습니다.

전쟁에도 희망은 계속돼야 한다

학교 운동장에서 언제 그런 비극을 겪었나 싶게 활기차게 웃고 노는 아이들을 보니 더욱 더 책임감이 강해졌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극악하게 변한다 해도, 부처님의 자비심을 실천하며 교육을 지원하겠다는 수레꾼의 원력은 멈출 수 없습니다. 학교는 하루빨리 정상화되어야 하고,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번에 처음으로 초등학교에 시청각 교육용 프로젝터를 설치했고, 중학교에도 개교 이래 최초로 컴퓨터 4대, 레이저 프린터와 컬러 프린터를 구입하여 새로 지은 공예학교 교실에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AI 시대에 뒤처지지 않도록 더 많은 컴퓨터를 장만해 학생들이 함께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해 개교한 수레꾼 공예학교 봉제반에는 신입생 8명을 위한 재봉틀 10대를 새로 설치하고 교육을 시작했으며, 목공반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목공예를 배울 수 있도록 추가 장비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존 봉제반 학생들을 씨엠립 시장으로 데려가 원단과 재료를 직접 고르게 했고, 1년간 성실히 기술을 배운 학생들에게 모두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수레꾼 공예학교에는 봉제 교실이 그럴 듯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목공예 교실과 컴퓨터 교육시설을 갖춘 제대로 된 배움터로 한발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쟁의 후유증을 하루빨리 극복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공예학교가 함께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열흘간의 짧은 체류를 마치고 돌아서지만, 아이들에게는 세상을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창을 마련해 주고 왔다는 뿌듯한 마음입니다.

이번 방문이 위험하다며 만류하신 분들이 많았지만, 만약 오지 않았다면 지난 세월 쌓아 온 마음의 빚을 외면하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은 앞으로도 뽀디봉 마을의 아이들과 함께 웃고 울며, 이곳에서 재가불자들이 피워 올린 자비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오시환(서암)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 대표

후원계좌 : 국민은행 후원회비 통장
463501–01–197039
예금주 :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



최근 건립된 뽀디봉 공예학교에서 선배 학생들이 신입생들에게 봉제 기술을 가르치고 있다.



오시환 수레꾼 대표가 봉제반 장학생 4명에게 각각 장학금 200달러를 전달하고 있다.



중학교 학생들을 위해 수레꾼이 구입한 컴퓨터 4대가 교실에 설치되고 있다.



오시환 대표가 중학교에 비상약 기금 150달러를 전달하고 있다.



일상을 회복한 학생의 환한 미소.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